

연중 제 16 주 일

기도서 P. 394 A해

제1독서 (지서12, 13, 16-19절)

제2독서 (로마 8, 26-27절)

복 음 (마태 13, 34-43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098)

□ 전주교구 정의 평화 미사 강론(7월18일)

진리·정의·자유·인권존중이 우리의 살길

김 수 환 추기경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교구에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는 소식을 이미 지난 주에 들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즉시 와보지 못하고 오늘에야 겨우 이자리에서 여러분을 뵈옵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대로,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하느님께 비는 그런 기도, 미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 미사를 집전하면서 저는 어느 때보다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늦게나마 이렇게 오게된 것은, 이 사태가 너무나 심상치 않은 것이 걱정 되어서, 또 아울러 전주교구 신부님과 수도자, 신자 여러분이 지금도 겪고 있는 고난에 10분의 1이라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온 것은, 이번 사태가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어디까지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께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태의 전말은 저도 보고를 들어서 대충 알고 있고, 또 이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직접 보고 듣고, 또 몸으로 겪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더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역사상 전대미문(前代未聞)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태에 한 교구의 성직자들이 거의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은 건강상 제외되었지만, 거의 전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늘로서 여드레째 단식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또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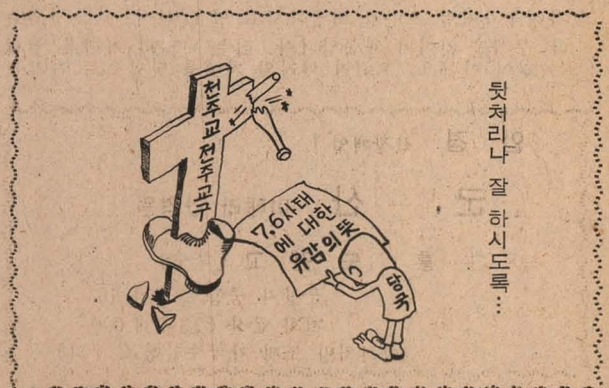
그러나 신부님들이 이번 단식기도회에 들어가게 된 직접 동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대로, 전국적인 것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이 교구의 신부님들에 대한 당국의 도에 넘칠 정도의 미행·감시, 또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6일날 빚어졌던 불상사 즉, 신부님 중의 한 분인 박종상 신부님이 경찰에 의해 구타당하고 유기되었다는 사건이 겹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님들이 단식기도를 하게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신부님들의 단식기도의 의미는 그보다도 더 깊은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신부님들이 직접 쓰신 호소문이 잘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님들은 호소문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동료사제

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흥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만행이 소위 성직자들에게 저질러질 때 힘없고 말없는 우리의 우직스러운 형제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여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고 듣지도 못할 뿐더러, 말할 수조차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신부님들은 자신들이 당한 억울함 때문에 이같이 극한적이라면 극한적인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부들은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아 존경받을 수 있고, 그 사상마저 의심받을 수 없는 처지인데도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일방직 사건에서 희생된 여성근로자와 그와 유사한 근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많은 농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학생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자신들의 몸을 짊어 단식기도를 8일째나 계속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우리 자신들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는가, 사제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였는가, 묵인이들의 해방과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이웃에 대한 사랑—특히 가난한 이웃에대한 사랑—을 잘 실천해 왔는가? 이런 것에 대한 숙죄의 의미, 사제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숙죄의 의미도 이번 단식기도에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물론, 오늘날 누구나 느끼듯이, 우리 사회에는 여러
(2면에 계속)

숲 정 이 산책



<1면에서 계속>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진실이 너무나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번 사태도 사태 자체가 어떻든간에 어느 신문도 이것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진실이 너무나 가리워지고, 정의가 짓밟히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을 밝힐 수 있다면 자신들의 몸을 불태워 워셔라도 스스로 그 등불이 되고자 하는 것이 단식기도를 하는 신부님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호소문 서두에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즉 모든 동포들이 하느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의 건설을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정의가 눈물을 닦아주고, 진리가 어둠을 밝혀 억압의 사슬을 풀어주며, 진정한 국가안보를 이룩함으로써 평화를 노래하는 세상을 원할 뿐입니다"고 자신들이 가지는 단식기도의 참뜻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토대로 한 밝고 빛나는 국가사회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신부님들의 진의입니다. 이것은 복음에서 가르치는 하느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진리가 거짓에 의해서 밀려나는데도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통 사람으로도 올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더우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제가 침묵을 지킨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제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또 정의가 불의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는 데도 방관만 하고 있다면 역시 올바른 양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우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제일 수도 없습니다.

신부님들의 이번 단식기도는 어쩌면 표면적으로는 실패와 같이 무위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고 치욕스러운 실패와 같이 보였듯이, 이분들의 그것도 어리석은 소행처럼 끝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확실히 살아 계십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들의 손에 죄인처럼 어리석게 죽은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안에 진정 살아 계시고 이 역사를 주재하십니다. 이와같은 신부님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와 우리 겨레를 위해서 결코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 독립사에 있어 위대한 어른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셨습니다. 이분은 비록 민족독립이라는 것이 당시에 있어서 겨레의 지상과제로 보셨지만, 진리와 정의를 희생시켜서까지 얻으시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만약 오늘에 살아 계신다면, 국가안보라든지 국력신장, 이를 위한 경제발전이 아무리 화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진리와 정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를 얻으려고 하지는 안된다고, 죽더라도 거짓은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를 훈계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정의를 의뢰한 곳에서는 우선은 힘으로 경제발전이 이룩되고 국력이 신장되고, 국가안보 등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사상누각처럼 조만간 허물어지고 말 것이며, 그 결과는 더 무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라와 겨레를 살리는 길이 아니요, 오히려 나라와 겨레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남한의 공산화를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안보라는 말을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또 모든 힘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총력안보를 위해서 군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기하기 위해서 주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총력안보를 위해서 참으로 국민 모두가 단결되는 일체를 이룩하는 정신적 힘과 가치의 육성에는 때때로 너무나 반대로 역행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김일성이가 남한의 적화를 꿈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화가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반공에 있어서 세계 어디서나 잘 알려진 우리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인 말하자면 기독교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민주세대들일 것입니다. 남한의 군대도, 경제성장도 진안목에서 볼 때는 김일성이가 결코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한 사람들의 기독교 사상, 하느님을 믿고 그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정의 및 인간존엄성에 대한 신념이 점점 더 커가는 것을 그는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적 사상을 배경으로 한 민주주의적인 힘의 성장을 가장 절대적인 장애요소로 볼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제일 없애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기독교, 가톨릭, 민주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때려부수는 일이 김일성이가 가장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라고 한 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무엇보다도 김일성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세대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약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양심에서 하는 건설적인 비판의 소리까지도 무조건 듣기 싫어합니다. 싫어할뿐 아니라 그 소리를 질서시키고, 심지어 애독 선전합니다. 여기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사태에 있어서도 그러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땅에 정의가 서고, 밝고 빛나는 국가사회가 이룩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인지 아닌지를,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이라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진실을 추구하고 양심적인 말을 하는 교수는 대학에서 쫓겨나고, 근로자들은 공장에서 쫓겨나고, 언론인이면 신문사에서 쫓겨나 직장을 잃습니다. 또 그중에 상당수는 지금 영어의 몸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감잡하고 질서가 있는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속에서 힘에 의해 이룩되는 질서는 참된 의미의 질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뿐더러, 그렇게 함으로써 반공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대치시킬 수 없는 값진 정신의 힘을 국민의 가슴에서 빼버리고 맙니다. 자유·평등·정의·인권·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친공분자, 용공분자, 어떤 때는 공산 오열자라까지 불고 잡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늘, 정신적 불구자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힘의 철학에 의해서 마음도 정신도 비어

<3면에 계속>

안 경 신장개업!

군, 산 이태리 안경원

主 席 道 民 高 (석수)

군산시 중앙로 1가 10

전화 군산 ③3080번

(안과처방 조제 작곡수업렌즈 구비)

☆ 교우 여러분의 세무 대책 상담 환영합니다

- 업무 ☆세무고문·장부조직·기장지도·제세신고대리
- ☆법인설립·청산·결산에 따른 세무업무대리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기타업무대리

세무사 임 종 을(마태오)

- 사무실 : 전주시 경원동 3가 34-7(세무서 후문 앞)
- 제일고시학원 2층(전화 ③ 2646)

<2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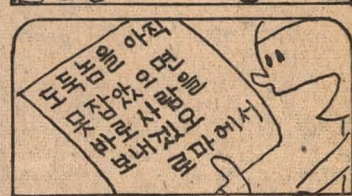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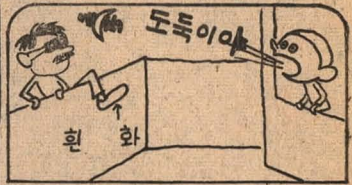
가는 정신적 가치의 부재속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때때로 기성세대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무어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고, 고층건물이 들어선 저것이 가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겁니다.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경제발전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끝까지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할 가치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젊은이는 물론 온 국민이 정신적으로 허탈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열이 빠진 민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진리·정의·자유·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온갖 시련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때 우리 모두가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 특히 약한 백성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로 뭉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공산세력 이상의 적이 우리를 침범한다 해도, 우리 모두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킬만큼 용감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총화단결입니다. 이 힘 위에 경제성장·국력성장·국가안보가 무리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8일째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던사까지 단식기도한 전주교구 신부님들 뜻도, 이런 기도회때마다 많이 모인 여러분의 뜻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때문에 신부님들은 목숨을 바칠 용의까지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안에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룩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의 의견으로 이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신부님들은 가능하면 오늘로서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늘까지 단식기도로서 표명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표명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은 스스로의 몸을 약음으로써 복음적 증언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 결손된 마음으로 맡깁시다. 진인사하고 대천명(盡人事 待天命)합니다. 인간의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는 것은 동양의 사상일뿐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희망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룩되는 것이지, 결코 인간적인 척도에 의한 보복이나 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우뚝어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못박는 사람, 곧 원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이는 다른 어느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원수가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같은 겨레, 다함께 한핏줄입니다. 어떤 원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부터 먼저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적이요, 또 사제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승리가 아니고, 그라스도의 정신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사랑이 모든이에게 미쳐 모든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특히 사제의 사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태가 아무리 험할 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음으로서, 이같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삼을 사도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1978. 7. 18. 전주 중앙성당에서

요셉이 (260) 김병호



建設部
시멘트 제품 제조 免許業體
신 흥 공 업 사
파티마 성당 입구
☎ 6016, 2519
李敎成, 김화자(클라라)

◇경운기·분무기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진안, 장제, 매리점)
진안전화 577번
장계전화 주간 9번, 야간 40번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직원 채용공고** □
1. 모집인원 : 남자 ○명
2. 응모자격 : 고졸 이상의 실력을 가진자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30세 미만의 남자
3.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명합판사진, 병적증명서 각 1통
※ 부기 주산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1통
4. 접수시간 : 1978년 7월 28일 오후 5시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면접일자 : 7월 29일 오후 2시 본조합 사무실
6. 접수처 : 전주시 서노송동 601 가톨릭센터내 본 조합 사무실 전화 ☎ 3185
전주 임원 신용협동조합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양심을 찾자 ★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화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급기사 모집)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보)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
(지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옆 중앙시장동
(전화 ☎ 4577, 5789)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단식기도를 끝내며 (78. 7. 19 오전 5시, 철야기도회를 마치고)
 우리는 그동안, 소위 「7·6사태」를 증대한 종교탄압과 인권문제로 단정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근본대
 책으로 6개 요구사항을 내걸고 8일간의 단식기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7월
 18일 오후 8시경 치안책임자로부터, 신부에 대한 구타와 유기사건에 대한 공개사과가 있었고, 앞으로 신부에
 대한 감시와 미행을 중지하겠다는 약속과 폭행사건에 관련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겠다는 확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천주교회의 지도자인 김수환 추기경님의 단식중지에 대한 간곡한 권고가 있어 교구
 사제단은 이에 순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나머지 문제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을 분
 명히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 사제단의 단식기도 기간중 정신적, 물질적으로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않
 으셨던 주교님들과 타교구 신부님들; 수도자들, 각분당 신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1. 대학생 연합회 지역대회 (25<화>-28<금>), 장수 덕산공소 ※ 신청장소-덕진 가톨릭 대학생 회관
2. 중·고등학생 연합회 지역대회 (26<수>-29<토>), 무주 앞섬
3. 주일학교 교리교사 수련회 (26<수>-29<토>), 장소: 장수 지리산 회비: 4지구-2,050원 기타-2,000원
4. 신학생 후보생 교육 대상자 명단을 빨리 보내 주십시오 (7월 30일 예정) 접수: 교구청 사무국
5. 성서 동지회 (B.F) 연수회 (8월 3일<목>-6일<금>) 회비: 6,500원, 장소: 완주 송광사 자연의 집)
 성서를 사랑하며 알고 싶은 젊은 형제님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양)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홍욱
 보좌 신부 오승영
 사도 회장 이복성

1. 청년 합창단 단합대회 :
 일시-22일(토)~24일(월)
 장소: 진안군 상전면 죽도
 2. 영세사진 찾아가세요 (사무실)
 3. 미사참여때 성경 성가집 지참하세요
 4. 꾸르실로팀 회합 : 23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153,635원

어린이를 많이 보내 주시고 중·고생 대상자는 별도
 공부 바람

2. 신축헌금 : 7만
 강기호, 조부영 (각 100,000원), 김주영, 유아분, 이영순, 손충원 (각 10,000원), 김준태 (15,000원), 임덕수 (2,000원), 장순덕, 이갑순, 은은희 (각 5,000원)
 채규주 (7,000원), 오수업 (50,000원)

□ 지난주 봉헌금 : 42,965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영익
 보좌 신부 아용성
 사도 회장 김희복

1. 성우회 야유회 : 오늘 소양천에서
 소양다리에 오전 10시까지 도착 바랍니다
 2. 첫 영성체자 교리 : 8. 1~14까지 접수마감 7. 30일
 * 까지, 첫 영성체식 8. 15일 (성모 동소승천 대축일)
 3. 주일학교 하기방학 특별교리 : 8. 1~6일까지 (매일)
 4. 교무금 납부의 날 : 다음 주일은 교무금 납부의 날
 정성드려 교무금 밀리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9,29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중·고등학생 하기 수련회 : 본당신부님 인솔하여
 7월 26~29일 (3박 4일) 장소: 진안군(병천)
 2. 어머니 성가연습 : 매주(목) 오후 2시
 3. 유아 세례식 : 7월 28일(금) 어머니미사
 4. 파년도 미수 교무금을 정리합시다
 5. 카메라·필름 기타 일일 현대칼라 특약점 개점
 요양회 총무-홍성조, 장소: 동양아파트 앞
- 지난주 봉헌금 : 109,47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제
 보좌 신부 기행상
 사도 회장 유제

1. 미사시간 안내
 주일-오전 6시·10시, 오후 5시·8시,
 평일-오전 6시, 오후 8시,
 금요일-오전 10시
 2. 주일학교 하계 특별교리 : 8월 1~7일까지
 첫 고해 첫영성체반 교리있습니다 (부모님의 협조와
 배려 바람)
 3. 특별교리 1일교장 : 수고하시겠습니다
 1일-김용환, 2일-송영기, 3일-엄기섭,
 4일-유훈석, 5일-임병순, 6일-유정순,
 7일-본당 사도회장님
 4. 축! 박종근 신부님 대위님관 8월 5일
 5. 반미사·가정미사는 본당 사무실로 접수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79,68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성
 보좌 신부 이순성
 사도 회장 유석

1. 6월말 분당운영 (교구 보고)
 수입 : 교무금-2,613,600원,
 봉헌금-3,706,277원,
 기타 - 12,138원
 계 6,332,015원
 지출-포교사업비 475,320원
 교 구 비 500,000"
 인 건 비 2,228,800"
 수 용 비 2,848,477"
 잡 지 출 272,280"
 계 6,324,877원
 2. 위도(서해안) 하기 피서단 모집
 주관 : 사도회, 일시 : 7월 31일~8월 2일,
 회비 : 3,000원 (교통비 기타 비용),
 주식, 부식, 침구는 각자 부담
 미사예식서 (기도서 성경) 지참
- 지난주 봉헌금 : 151,547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복자 부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반회장 회의 : 7. 31일 오후 8시 (사제관)
 3. 복자신용협동조합 재무부 인가 (78년 6월 29일자)
 모든 신자들은 조합원이 되어 도움주고 도움 받습
 니다
 4. 본당 학생회 하기 수련회 개최
 일시 : 7월 26일 오전 9시~29일 오후 8시 (3박 4일)
 장소 : 진안-상전(예정)
 5. 1일교장 : 오늘-조성호 형제,
 다음주일-장동주 형제
- 지난주 봉헌금 : 133,110원

(파티마)

전화 ②7249

주임 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 ※ 신부님 단식투쟁에 성의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
 사드립니다
1. 하기 어린이 주일학교 : 8월 1일~8월 6일까지
 귀여운 어린이들 많이 맡겨 주세요
 2. 애령회 조직 : 회월 회말자는 사무장께 연락 바람
 3. 교적정리 : 타 분당에 교적이 있으신 분은 7월 중으로
 옮겨오세요
 4. 교무금 납부일 : 매일 마지막 주일
 5. 비품비 마련해 주신분 : 김시철로 10,000원,
 채수현 15,000원
 6. 교무금 납입자 : 소나임 3,000원, 양경도 1,000원,
 서숙자 1,000원, 차혜선 2,000원,
- 지난주 봉헌금 : 30,00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1. 첫 영성체 : 8월 6일